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장휘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청년후기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동시에 높은 애착과 높은 분리-개별화의 조합이 가장 바람직한 적응을 가능하게 하고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형성을 촉진시키려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IPPA를 사용하여 대학생들(N=257)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고, 분리-개별화의 지표로서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와 Noom의 자율성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적응지표로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네 가지 증상차원들이 사용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 정도를 중앙치를 기준으로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개의 가설이 모두 지지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루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과 높은 분리-개별화를 이룬 대학생들이 가장 적응적이었으며 이성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애착을 형성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청년후기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주요어: 애착, 분리-개별화, 적응

청년후기 동안 각 개인은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를 이루고 정체감을 확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형성한 부모에 대한 애착(attachment)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관심을 갖는다(Geuzaine, Debry, & Liesens, 2000;

- 1) 이 연구는 2001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2) 이 논문에 대한 연락은 hsjang@cnu.ac.kr로 하기 바람.

Noom, Dekovic, & Meeus, 1999; Kenny & Rice, 1995; Rice, FitzGerald, Whaley & Gibb, 1995; Schultheiss & Blustein, 1994; Steinberg & Silverberg, 1986). 애착이란 부모나 친구와 같은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로서 정의되며(Paterson, Field & Pryor, 1994; Armsden & Greenberg, 1987) 자율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반면, 분리-개별화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 중에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켜야만 성공적인 분리-개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그 예로서 Steinberg와 Silverberg(1986) 그리고 Levitz-Jones와 Orlofsky(1985)는 청년기 동안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에 대한 애착으로 이동하므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와의 분리-개별화는 상반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횡단연구와 종단연구를 함께 수행한 Rice 등(1995)은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활에서의 적응과 긍정적 연합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와는 역상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안정되게 애착된 대학생들이 불안정하게 애착된 대학생들보다 그들의 부모에게 더 의존적이었으며 부모로부터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Ryan과 Lynch (1989)도 정서적 자율성은 불안정성 및 낮은 자기존중감과 정적으로 상관계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자율성은

곧 탈애착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대조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유의한 상관을 이루고 있으므로 부모에게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 청년들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분리-개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동년배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부모와 또래 양자에 대한 애착은 심리적 안녕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그들로부터의 분리-개별화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관련된 개념임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면 영아기 동안 어머니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짧은 분리 후에 어머니와 재결합하면 쉽게 탐색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청년후기의 분리-개별화는 자기에 대한 탐색인 동시에 독립적인 정체감의 탐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Blos(1967)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할 필요없이 독립과 자기의 느낌을 발달시킬 수 있을 때 분리-개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청년기 동안의 분리-개별화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분리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Blos의 주장을 지지한 Moor(1987)도 부모와의 분리는 중다차원적으로 구성되고 청년후기 청년들이 분리를 정의하고 성취하는 방식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과 어머니 및 아버지에게 대한 관계지각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근의 Laible, Carlo 및 Raffaelli (2000)나 Silverberg와 Gondoli(1996) 그리고 Baltes와 Silverberg (1994) 등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한

편으로 유능한 개인으로서의 출현하는 자기감(a sense of self)과 다른 한편으로 유의미한 타인과 의 비록 변형되기는 하지만, 계속된 연결감(애착)과의 균형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애착의 맥락 내에서 자율성의 격려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청년후기 대학생들이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연구자들의 지배적 생각이다. 더욱이 전생애 동안의 애착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Kobak & Cole, 1994; Berman & Sperling, 1994; Rothbard & Shaver, 1994; Kobak & Sceery, 1988; Hazan & Shaver, 1987)은 타인에 대한 애착은 전생애를 통하여 중요시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애착이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분리를 촉진시킬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두 변인 모두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들과 긍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Rice 등 (1995)을 포함하는 여러 연구자들(Kenny & Rice, 1995; Bradford & Lyddon, 1993;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Armsden & Greenberg, 1987)은 일관성있게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은 더 높은 자기존중감, 더 큰 인생만족, 더 나은 대학생에서의 적응, 더 적은 심리적 괴로움 그리고 더 큰 지각된 사회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청년기의 분리-개별화나 자율성의 발달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Holmbeck & Leake, 1999; Hauser & Greene, 1991; Rice 등, 1990; Blos, 1979)도 분리-개별화가 성인기의 성격형성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여부를 결정하며 건강한 분리-개별화가 적응적

발달을 이루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를 기능적, 정서적, 갈등적 그리고 태도적 독립으로 구분한 Hoffman(1984)은 갈등적 독립과 개인의 적응간에 그리고 정서적 독립과 학구적 능력 사이에서 긍정적 관계를 발견하였고 Frank, Pirsch 그리고 Wright(1990)도 정서적 자율성과 건강한 정체감 발달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년후기의 적응과 관련되어 있고 분리-개별화 또한 적응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애착과 분리-개별화 역시 서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만약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후속되는 문제는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청소년들의 적응에 각기 독립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높은 수준의 애착과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 조합이 여분의 효과를 생성하는가이다. 최근에 애착과 자율성의 관계를 연구한 Noom 등(1999)은 애착의 맥락내에서 분리-개별화나 자율성의 격려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애착과 자율성간의 주효과 모델과 상호작용 모델을 검증하였다. 여기서 주효과 모델이란 애착과 자율성 양자가 단순히 부가적으로, 청소년들의 적응에 독립적인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상호작용 모델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높은 수준의 애착의 조합이 여분의 긍정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모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높은 수준의 애착과 조합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더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Noom 등은 그들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애착과 자율성의 주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

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청소년들과 높은 자율성 점수를 갖는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가장 만족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Lamborn과 Steinberg(1993)는 부모에 대한 정서적 탈애착의 느낌과 결합된 지원적이지 못한 가족환경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애착과 낮은 수준의 정서적 자율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입증하였다. Fuhrman과 Holmbeck (1995)도 높은 정서적 자율성은 지원적이지 못한 가족환경에서의 긍정적 적응과 연합되어 있다고 밝혀 높은 분리-개별화는 부모에 대한 낮은 애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적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Schultheiss와 Blustein(1994)는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만 애착과 분리-개별화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Schultheiss와 Blustein에 의하면, 여자 대학생들은 양쪽 부모에게 강하게 애착되어 있으면서 태도적 의존을 지니고 있을 때 (분리-개별화 정도가 낮은) 가장 적응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애착이론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은 환경의 탐색시에 안전기지(secure base)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므로(Ainsworth, 1989; Bowlby, 1980),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년후기 동안에도 새로운 환경의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청년기동안 이루어지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는 애착과의 관계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일 것임

로 높은 수준의 애착과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적응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Noom 등, 1999; 장휘숙, 1997; Paterson, Pryor & Field, 1995)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각기 상이한 정도의 애착을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분리하여 분리-개별화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동시에 양자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들의 적응과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대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루는 동시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대학생들의 적응과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에 상호작용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높은 분리-개별화를 이룬 집단이 가장 적응적이며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리-개별화는 곧 자율성의 획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리-개별화의 지표로서 부모로부터 분리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와 함께 자율성 척도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분리-개별화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적응의 지표로서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에 따라 대학생들의 분리-개별화 정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즉 부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정도와 분리-개별화 정도는 대학생들의 적응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높은 애착과 높은 분리-개별화의 조합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적응을 이루게 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상호작용 모델을 지지할 것이다.
3.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정도와 분리-개별화 정도는 대학생들의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높은 애착과 높은 분리-개별화 조합이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학 1, 2학년 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으므로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분이 부재한 학생과 반응을 누락한 학생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분석 대상자는 257명(남학생: 130명, 여학생: 127명)이었다. 남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9.85(SD=2.18)세였고 여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9.44(SD=1.07)세였다. 검사는 심리학개론 수업시간에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검사실시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애착척도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척도: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대학생들의 애착은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원래의 IPPA는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28개의 부모문항과 25개의 동년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원래의 IPPA를 활용하여 어머니, 아버지 및 동년배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의 동일한 내용을 질문한 Paterson, Field 그리고 Pryor(1994)의 검사 중에서 어머니문항과 아버지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aterson 등(1994)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 모두 .94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88과 .89였다.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척도: 대학생들의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은 Collins와 Read(1990)가 제작한 18문항의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척도에 기초하여 개발된 이 질문지 애착척도는 개인이 낭만적 파트너와의 가까운 관계에서 경험하는 편안한 정도(가까움)와 그들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느낌(의존) 및 그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

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정도(불안)를 나타내는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들은 6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형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1이었다.

분리-개별화 검사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 :Moore(1987)에 의해 개발된 이 검사는 8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며 전체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그들이 집을 떠나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7점 척도상에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Moore(1987)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분리의 구성요소로 확인된 자기관리 하위척도(6문항)와 정서적 탈애착 하위척도(6문항)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계산된 내적 일관성 계수는 자기관리요인 .78, 정서적 탈애착요인 .77이었고 두가지 요인을 합산한 전체 분리검사 점수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0이었다.

자율성척도: Bekker(1991)가 제작하고 Noom(1999)에 의해 개작된 자기보고형의 자율성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15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의 질문지검사로서 세 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세개의 하위척도 중 태도적 자율성 척도(5문항)는 자신의 목표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며 정서적 자율성 척도(5문항)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다. 또한 기능적 자율성 척도(5문항)는 자기조절과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계산된 내적 일관성 계수는 태도적 자율성 .80, 정서적 자율성 .78, 기능적 자율성 .82 그리고 세가지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합산한 전체 자율성 점수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5였다.

심리적 건강척도

Derogatis, Rickels 및 Rock(1976)에 의해 개발되고 김광일, 김재환 그리고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 SCS-90-R)가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SCL-90-R은 9개 증상차원을 포함하고 90개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검사로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9개 증상차원 중 대인민감성(9문항), 우울(13문항), 불안(10문항) 그리고 적대감(6문항)의 네가지 증상차원만을 사용하였고 t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결 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 지표로 사용된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 하위요인들 및 Noom의 자율성 척도 하위요인들 그리고 심리적 건강지표로 사용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네가지 하위요인들에서 남녀 대학생들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물론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

표 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괄호 안은 표준편차 이하 동일함)

구분		어머니 애착상집단 (N=128)	어머니 애착하집단 (N=129)	t값
Moore의 부모-청년 분리 검사	자기관리	4.40(0.96)	4.48(0.14)	0.65
	정서적 탈애착	6.30(0.55)	5.76(0.97)	5.52***
	전체점수	5.35(0.53)	5.12(0.60)	3.24**
Noom의 자율성 척도	태도적 자율성	2.94(0.66)	2.72(0.77)	2.49*
	정서적 자율성	3.15(0.60)	3.05(0.70)	1.25
	기능적 자율성	3.20(0.66)	3.08(0.79)	1.30
	전체점수	3.09(0.50)	2.95(0.61)	2.06*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에서 남녀간에 어떤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Noom의 자율성 척도의 태도적 자율성과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우울척도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 대학생들보다 태도적 자율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t_{(255)}=2.47, p<.05$) 우울척도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t_{(255)}=2.90, p<.01$). 이와같이 단지 두가지 하위척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후속분석에서는 성차를 무시하고 남녀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정도에 따라 대학생들의 분리-개별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를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하로 나누고 분리-개별화의 지표로 사용된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 점수 및 Noom의 자율성 척도 점수들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1과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높고 낮음에 따라 두가지 척도점수들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집단이 Moore 검사의 전체점수와 정서적

표 2.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아버지 애착상집단 (N=130)	아버지 애착하집단 (N=127)	t값
Moore 부모-청년 분리검사	자기관리	4.50(0.94)	4.38(1.16)	0.40
	정서적 탈애착	6.25(0.73)	5.80(0.88)	4.38***
	전체점수	5.37(0.52)	5.09(0.60)	3.95***
Noom의 자율성 척도	태도적 자율성	3.02(0.72)	2.63(0.67)	4.45***
	정서적 자율성	3.15(0.63)	3.05(0.67)	1.19
	기능적 자율성	3.26(0.73)	3.06(0.71)	2.79***
	전체점수	3.14(0.57)	2.90(0.53)	3.49***

탈애착요인 및 Noom 척도의 전체점수와 태도적 자율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대학생들이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정서적 탈애착과 더 높은 수준의 태도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어머니로부터 전체적으로 더 많이 분리되고 더 큰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앙치를 기준으로 구분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의하면,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집단이 Moore 검사의 전체점수와 정서적 탈애착요인 그리고 Noom 척도의 전체점수와 태도적 자율성 및 기능적 자율성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유사하게,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갖는 대학생들이 더 높은 정서적 탈애착과 더 높은 수준의 태도적 자율성 및 기능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아버지로부터 전체적으로 더 많이 분리되고 더 큰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표 1과 표 2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하였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가 대학생 자녀의 분리-개별화에 더 큰 기여를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와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점수 그리고 Noom의 자율성 척도점수 사이의 상관을 계산하고 각 상관계수를 Fisher의 Z계수로 변환하여 상관계수 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같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Moore 검사의 자기관리요인과 전체점수 그리고 Noom 척도의 태도적 자율성, 기능적 자율성 및 전체점수에서 유익하게 더 높은 상관계수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보다 부모로부터의 분리나 자율성 획득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대학생 자녀의 분리-개별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동시에 표 3의 결과는 비록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기관리 요인간에 부적 상관이 존재

표 3.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 분리검사 및 자율성 검사간의 상관관계

구 분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			
	자기 관리	정서적 탈애착	전체 점수	
어머니애착	-0.03	0.32	0.19	
아버지애착	0.12	0.29	0.33	
Z 값	1.75*	0.36	1.67*	
	Noom의 자율성 척도			
	태도적 자율성	정서적 자율성	기능적 자율성	전체 점수
어머니애착	0.09	0.05	0.04	0.07
아버지애착	0.27	0.09	0.21	0.23
Z 값	2.00*	0.44	1.78*	1.77*

표 4. 어머니 애착 상하집단과 분리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애착상· 분리상 (제1집단) (N=56)	애착상· 분리하 (제 2집단) (N=73)	애착하· 분리상 (제 3집단) (N=74)	애착하· 분리하 (제 4집단) (N=54)	F값	사후검증
대인 민감성	2.01(0.37)	2.24(0.55)	1.95(0.46)	2.51(0.59)	18.17***	1-4, 2-3, 2-4, 3-4
우울	1.74(0.51)	2.03(0.55)	1.93(0.77)	2.35(0.77)	11.45***	1-4, 2-4, 3-4
불안	1.42(0.43)	1.68(0.56)	1.52(0.59)	1.99(0.78)	12.67***	1-4, 2-4, 3-4
적대감	1.36(0.45)	1.54(0.56)	1.59(0.71)	1.70(0.72)	3.90**	1-4

하기는 하지만, 그외의 모든 요인들이 서로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 혹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어머니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와 분리-개별화 정도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 정도가 대학생들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앙치를 기준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를 상하로 구분하고 분리-개별화 점수로서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점수 및 Noom의 자율성 척도점수 역시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하로 구분하여 각기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하

였다. 그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Moore의 검사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제 1집단),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높고 Moore의 검사점수는 낮은 집단(제 2집단),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낮고 Moore의 검사점수는 높은 집단(제 3집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Moore의 검사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제 4집단)이 구분되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Noom의 자율성 척도점수 사이에서는 물론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와 Moore의 검사점수 사이에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와 Noom의 자율성 척도점수 사이에서도 네 개의 집단이 구분될 수 있었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상하집단과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의 상하집단에 따른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네가지 증상차원들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표 5. 어머니에 대한 애착 상하집단과 자율성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애착 상· 자율성 하 (제 1집단) (N=57)	애착 상· 자율성 하 (제 2집단) (N=74)	애착 하· 자율성 상 (제 3집단) (N=73)	애착 하· 자율성 하 (제 4집단) (N=53)	F값	사후검증
대인 민감성	2.01(0.40)	2.24(0.55)	2.05(0.52)	2.46(0.61)	11.33***	1-4, 3-4
우울	1.66(0.53)	2.13(0.45)	1.89(0.75)	2.40(0.76)	17.58***	1-2, 1-4, 3-4
불안	1.36(0.43)	1.74(0.51)	1.61(0.68)	1.95(0.75)	11.99***	1-2, 1-4, 3-4
적대감	1.37(0.56)	1.52(0.40)	1.67(0.55)	1.64(0.55)	3.29**	1-3

있는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분리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의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지표로 사용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그리고 적대감의 모든 증상차원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분리점수가 모두 높은 제 1집단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높고 분리점수는 낮은 제 2집단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낮고 분리점수는 높은 제 3집단이 애착과 분리점수가 모두 낮은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대인민감성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높고 분리점수는 낮은 제 2집단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낮고 분리점수는 높은 제 3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대인민감성 점수를 나타내었다.

Bonferroni 검증결과, 동일한 양상의 집단차이를 나타낸 우울과 불안차원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분리점수 모두가 높은 제1집단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높고 분리점수는 낮은 제 2집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는 낮고 분리점수는 높은 제 3집단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분리점수가 모두 낮은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우울점수와 불안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적대감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분리점수가 모두 높은 제 1집단이 두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적대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네가지 증상차원들에서 나타난 유사한 결과들은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점수와 높은 분리점수 조합이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및

적대감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가장 적응적이고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점수와 낮은 분리점수 조합이 유의하게 높은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및 적대감을 나타냄으로써 가장 부적응적임을 보여주었다. 비록 대인민감성에서만 제 2집단과 제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우울, 불안, 적대감 요인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애착이나 분리 중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적응을 이루기 어렵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각기 독립적으로 대학생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의 상하집단과 Noom의 자율성 척도점수의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도출되었다. 표 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의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지표로 사용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그리고 적대감의 증상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인민감성에서는 제 1집단이 제 4집단보다 그리고 제 3집단이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우울과 불안에서는 제 1집단이 제 2집단보다, 제 1집단이 제 4집단보다 그리고 제 3집단이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적대감에서는 제 1집단이 제 3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애착점수와 자율성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이 네가지 증상차원 모두에서 가장 낮

표 6. 아버지에 대한 애착 상하집단과 분리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애착 상· 분리 상 (제 1집단) (N=58)	애착 상· 분리 하 (제 2집단) (N=74)	애착 하· 분리 상 (제 3집단) (N=72)	애착 하· 분리 하 (제 4집단) (N=53)	F값	사후검증
대인 민감성	1.94(0.37)	2.28(0.49)	2.06(0.46)	2.49(0.63)	17.24***	1-2, 1-4, 3-4
우울	1.69(0.52)	1.97(0.60)	2.03(0.75)	2.38(0.72)	15.35***	1-3, 1-4, 2-4, 3-4
불안	1.36(0.37)	1.63(0.50)	1.63(0.63)	2.02(0.79)	16.35***	1-4, 2-4, 3-4
적대감	1.35(0.45)	1.46(0.52)	1.64(0.71)	1.75(0.72)	6.51**	1-4

은 점수를 나타내어 가장 적응적이었고 애착점수와 자율성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이 세가지 증상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적대감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가장 부적응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네가지 증상차원 어느 요인에서도 높은 애착점수와 낮은 자율성점수를 갖는 제 2집단과 낮은 애착점수와 높은 자율성점수를 갖는 제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은 비슷한 수준의 적응을 보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분리점수 조합에서와 동일하게,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자율성점수의 조합에서도 애착과 자율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적응에 영향을 줄 뿐아니라 애착과 자율성 중 어느 한 변인의 미숙한 발달은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적응을 저해할 것이라는 해

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와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점수의 상하집단에 따라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그리고 적대감에서의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그리고 적대감의 모든 증상차원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인민감성에서는 제 1집단이 제 2집단 보다, 제 1집단이 제 4집단보다 그리고 제 3집단이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얻었고, 우울에서는 제 1집단이 제 3집단보다, 제 1집단이 제 4집단보다, 제 2집단이 제 4집단보다 그리고 제 3집단이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우울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불안에서는 제 1집단이 제 4집단보다, 제 2집단이 제 4집단보다 그리고 제 3집단이 제

표 7. 아버지에 대한 애착 상하집단과 자율성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애착 상· 자율성 상 (제 1집단) (N=57)	애착 상· 자율성 하 (제 2집단) (N=73)	애착 하· 자율성 상 (제 3집단) (N=72)	애착 하· 자율성 하 (제 4집단) (N=55)	F값	사후검증
대인 민감성	1.94(0.35)	2.28(0.50)	2.17(0.57)	2.42(0.62)	12.12***	1-2, 1-4,
우울	1.62(0.47)	2.09(0.59)	2.00(0.80)	1.67(0.71)	21.25***	1-2, 1-3, 1-4, 2-4, 3-4
불안	1.34(0.40)	1.66(0.44)	1.67(0.71)	2.00(0.76)	15.73***	1-2, 1-3, 1-4, 2-4, 3-4
적대감	1.34(0.50)	1.47(0.44)	1.76(0.96)	1.67(0.51)	6.44**	1-3, 1-4

4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불안점수를 나타내었고 적대감에서는 제 1집단이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적대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와 분리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이 네가지 증상차원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가장 적응적이었고 애착과 분리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가장 부적응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과 낮은 분리조합과 아버지에 대한 낮은 애착과 높은 분리조합간에는 네가지 증상차원 어느 것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써 두 집단 모두 제 4집단보다는 더 적응적이나 제 1집단보다는 적응적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학생들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에서도 상호작용모델이 적용될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 중 어느 한 변인의 미숙한 발달은 청년후기의 적응을 저해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의 상하집단과 Noom의 자율성 척도점수의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도출되었다. 표 7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의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의 심리적 긴장지표로 사용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네가지 증상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인민감성에서는 제 1집단이 제 2집단보다 그리고 제 1집단이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대인민감성 점수를 나타내었고 우울과 불안에서는 제 1집단이 제 2집단, 제3 집단 그리고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우울과 불안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제 2집단은 제 4집단보다 그리고 제 3집단은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우울과 불안점수를 나타내었다. 적대감에서는 제 1집단이 제 3집단 및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적대감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점수와 자율성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이 네가지 증상차원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가장 적응적이었고 애착과 자율성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가장 부적응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과 낮은 자율성 점수조합과 아버지에 대한 낮은 애착과 높은 자율성 점수조합간에는 네가지 증상차원 어느 것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써 두 집단 모두 제 4집단보다는 더 적응적이나 제 1집단보다는 적응적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은 어머니의 경우와 동일하게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애착과 자율성 중 어느 한 변인의 미숙한 발달은 청년후기의 적응을 저해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그들의 분리-개별화 정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제시됨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안된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였다.

어머니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와 분리-개별화 정도가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

표 8. 어머니에 대한 애착 상하집단과 분리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애착 상· 분리 상 (제 1집단) (N=56)	애착 상· 분리 하 (제 2집단) (N=73)	애착 하· 분리 상 (제 3집단) (N=74)	애착 하· 분리 하 (제 4집단) (N=54)	F값	사후검증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	4.74(0.50)	4.59(0.57)	4.59(0.57)	4.15(0.55)	16.76***	1-4, 2-4, 3-4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대학생들의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점수와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점수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점수와 Noom 자율성 척도점수를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하로 구분하여 각각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애착점수와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점수 및 Noom의 자율성 척도점수를 상하로 구분하여 각각 네 개의 집단을 구성하고 대학생들의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일원변량분석결과, 표 8 및 표 9와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후속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제 1집단이 제 4집단보다, 제 2집단이 제 4집단보다 그리고 제 3집단이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높은 분리를 이룬 대학생들은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유의하게 더 높은 애착을 형성

하는 반면, 어머니에 대해 낮은 수준의 애착과 분리를 이룬 대학생들은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높고 분리 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애착은 낮고 높은 분리를 이룬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애착과 분리가 모두 높은 집단보다는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더 낮은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애착과 분리가 모두 낮은 집단보다는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유의하게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 제시된 바와같이, 제 1집단이 제 2집단보다, 제 1집단이 제 3집단보다 그리고 제 1집단이 제 4집단보다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고 제 2집단은 제 4집단보다 그리고 제 3집단은 제 4집단보다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유의하게 더 높은 애착점수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높은 집단의 대학생들이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가장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

표 9. 어머니에 대한 애착 상하집단과 자율성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애착 상· 자율성 상 (제 1집단) (N=57)	애착 상· 자율성 하 (제 2집단) (N=74)	애착 하· 자율성 상 (제 3집단) (N=73)	애착 하· 자율성 하 (제 4집단) (N=53)	F값	사후검증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	4.82 (0.45)	4.49(0.58)	4.50(0.55)	4.20(0.60)	16.17***	1-2, 1-3, 1-4, 2-4, 3-4

표 10. 아버지에 대한 애착 상하집단과 분리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애착 상· 분리 상 (제 1집단) (N=58)	애착상· 분리 하 (제 2집단) (N=74)	애착하· 분리 상 (제 3집단) (N=72)	애착하· 분리 하 (제 4집단) (N=53)	F값	사후검증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	4.81(0.47)	4.54(0.53)	4.47(0.56)	4.19(0.60)	17.04***	1-2, 1-3, 1-4, 2-4, 3-4

울성이 모두 낮은 집단의 대학생들이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높고 자율성이 낮은 집단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낮고 자율성이 높은 집단간에는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 두 집단 모두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높은 집단보다는 유의하게 낮은 애착점수를 그리고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집단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8과 표 9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들의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나 분리-개별화 중 어느 한 변인에서의 결함은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형성을 방해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의 상하집단에 따른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0 및 표 11과 같이 정확하게 동일한 양

상이 도출되었다. 즉 두 개의 분리-개별화 지표 모두에서 네 개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으로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 1집단이 제 2집단, 제 3집단 및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네 집단 중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가장 높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제 2집단과 제 3집단은 제 4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제 4집단이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제 2집단과 제 3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 점수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이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가장 높은 애착을 그리고 애착과 분리점수 및 애착과 자율성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이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가장 낮은 애착을 그리고 애착과 분리 및 애착과 자율성 점수 중 하나만 높은 집단은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중간 정도의 애착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학생들의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정도

표 11. 아버지에 대한 애착 상하집단과 자율성 상하집단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애착 상· 자율성 상 (제 1집단) (N=57)	애착 상· 자율성 하 (제 2집단) (N=73)	애착 하· 자율성 상 (제 3집단) (N=72)	애착 하· 자율성 하 (제 4집단) (N=55)	F값	사후검증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	4.82(0.43)	4.52(0.57)	4.47(0.58)	4.19(0.59)	17.73***	1-2, 1-3, 1-4, 2-4, 3-4

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 혹은 자율성과의 상호작용결과이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 혹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자율성 중 어느 한 변인에서의 미숙한 발달은 성인기의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형성을 방해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높은 애착과 높은 분리-개별화 조합이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하게 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청년후기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는 물론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조합이 대학생들의 적응과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과 높은 분리-개별화를 이룬 집단,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과 낮은 분리-개별화를 이룬 집단,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낮은 애착과 높은 분리-개별화를 이룬 집단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모두 낮은 집단을 구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루고 높은 애착과 높은 분리-개별화를 이룬 대학생들이 가장 적응적이며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서도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Paterson, Field 및 Pryor(1994)의 애착검사 중 어머니 문항과 아버지 문항이 사용되

었고 분리-개별화의 지표로서 Moore의 부모-청년 분리검사와 Noom의 자율성 척도가 그리고 적응지표로서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네가지 증상차원들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된 세 개의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즉 가설 1에서의 가정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루므로써 두 변인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개념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가설 2와 가설 3에서의 가정과 일치하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높은 분리-개별화를 이룬 대학생들이 가장 적응적이었으며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청년후기의 적응과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또한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 중 어느 한 변인의 발달에서 결함이 있을 때 만족스러운 적응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형성도 방해를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분리-개별화 중 어느 한 변인의 성공적 발달만으로는 청년후기 대학생들의 적응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개념으로서 애착의 맥락 내에서 분리-개별화나 자율성의 발달을 격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Silverberg와

Gondoli(1996), Baltes와 Silverberg(1994) 등의 결과와 일치할 뿐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한 Lamborn과 Steinberg(1993) 및 Fuhrman과 Holmbeck(199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율성이나 분리-개별화는 남성의 전형적 특성으로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의존은 여성의 전형적 특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찍이 Moore(1987)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고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애착을 연구한 Paterson 등(1994)도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어머니를 지원과 근접을 위해 더 많이 활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리에서의 성차를 연구한 Geuzaine, Debry 및 Liesens(2000) 역시 개인의 성은 분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애 대한 애착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분리-개별화 지표 중 단지 하나의 하위척도에 서만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한국의 남녀 대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분리-개별화에서 대단히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와의 차이나는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차이로 설명해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대학생들의 경우, Van Wel(1994) 연구나 장휘숙(1997)의 연구에서 그 가능성을 보인 것처럼,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양가감정에서 벗어나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감소된 애착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

을 뿐아니라 남녀 대학생 모두 연령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성차의 문제는 청년초기부터 청년후기까지 계속될 수 있는 종단적 연구에 의해서만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에 기초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애 대한 애착은 대학생 자녀들의 분리-개별화에 유사한 영향을 주고 양자에 대한 높은 애착은 서로 유사하게 분리-개별화와 상호작용한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그러나 상관계수 비교검증결과, 아버지애 대한 애착이 어머니애 대한 애착보다 대학생 자녀의 분리-개별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자녀양육방식은 자녀의 분리-개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부모-자녀간의 응집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청년후기 대학생들의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높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물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지원적인 양육과 훈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자녀간의 높은 응집성과 낮은 분리-개별화는 고부갈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족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형성의 격려는 가족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 양자가 대학생들의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

너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Hazan과 Shaver(1987)가 3범주의 애착척도를 개발하여 성인기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을 연구한 이래로 영아기에 부모에 대해 형성한 애착은 성인기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을 결정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Bowlby(1980)가 제안한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의하면,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이른 애착관계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하고 그것은 이후의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므로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성인기의 타인에 대한 애착양식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연구는 영아기 애착과 성인기 동안의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에서 나타나는 질적 차이가 청년기 동안의 부모에 대한 분리-개별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상식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으므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의미한 이성애에 대한 애착정도가 결정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적응지표가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정도를 측정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네가지(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차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대학생들의 적응에 각기 독립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Noom 등(1999)은 대학생에서의 학구적, 사회적 능력과 자기존중감, 문제행동 등의 다양한 적응지표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종속측정치인 적응지표가 달라지면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래에는 Noom 등이 사용한 지표들과 함께 다양한 적응지표들이 포함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 역시 낯선 세계를 탐색하기 위한 안전기지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는 애착의 맥락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상호작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적응과 이성이나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애착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부.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ltes, M. M., & Bilverberg, S. (1994). The dynamics between dependency and autonomy: Illustrations across the life span. In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12, Featherman, D. L., Lerner, R. M. and Perlmutter, M. (Ed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pp. 41-90.
- Bekker, M. H. (1991). *De beweeglijke grenzen van het vrouwelijk ego* (The movable boundaries of the female ego). Delft: Eburon.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1).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427-440.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In *the adolescent passag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Basic, New York.
- Bradford, E., & Lyddon, W. J. (1993). Current parental attachment: Its relation to perceived psychological di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56-260.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Derogatis, L. R., Rickels, K., & Rock, A. F. (1976). The SCL-90 and the MMPI: 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8, 280-289.
- Frank, S. J., Pirsch, L. A., & Wright, V. C. (1990). La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Relationships among deidealization, autonomy, relatedness, and insecurity and implications for adolescent adjustment and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71-588.
- Fuhrman, T., & Holmbeck, G. N. (1995). A contextual-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793-811.
- Geuzaine, C., Debry, M., & Liesens, V. (2000). Separation from parents in late adolescence: The same for boys and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79-91.
- Hauser, S. T., & Greene, W. M. (1991).

- Passages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In Greenspan, S. I., & Pollock, G. H. (Eds.), *The course of life: Vol. IV. Adolescence*.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Madison, CT, pp. 377-40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ill, J. P., & Holmbeck, G. N. (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Annals of Child Development*, 3, 145-189.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lmbeck, G. N., & Leake, C. (1999).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5), 563-581.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 Kobak, R., & Cole, H. (1994). Attachment and meta-monitoring: Implications for adolescent autonomy and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isorders and dysfunctions of the self* (Vol. 5, pp. 267-297).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amborn, S. D., & Steinberg, L. (1993). Emotional autonomy redux: Revisiting Ryan and Lynch. *Child Development*, 64, 483-499.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Levitz-Jones, E. M., & Orlofsky, J. L. (1985).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ntimacy capacity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156-169.
- Moore, W. (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98-307.
- Noom, M. J. (1999). *Adolescent autonomy: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Delft, The Netherlands: Eburon.
- Noom, M. J., Dekovic, M., & Meeus, W. H. J.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 771-783.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 father,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1.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365-376.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463-474.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span.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31-71). New York: Guilford Press.
-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 Schultheiss, D. E. P. & Blustein, D. L.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2), 248-255.
- Silverberg, S. B., & Gondoli, D. M. (1996). Autonomy in adolescence: A contextualized perspective. In *Psychosocial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Progress in developmental contextualism*. Adams, G., & Gullotta, T. (Eds.), Thousand Oaks, CA: Sage, pp. 12-61.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Van Wel, F. (1994). "I count my parents among my best friends": Youths' bonds with parents and friend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835-842.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 Vol. 15, No. 1, 101 - 121

Attachments to parents,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ssumption that attachments to mother and father are positively related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 high level of separation-individuation within a context of attachment provides the best constellation for psychosocial adjustment and attachments to other people in late adolescence. 257 college students completed two attachment scales, two separation-individuation scales and four symptom dimensions of SCL-90-R. Results indicated that attachments to mother and father were positively related separation-individuation and the combination of a high level of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ttachment had an extra positive effect.

Keywords: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djustment